

### 기증자 증가 추세지만 선진국 비해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뇌사기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해 2306건의 신장·간장 등의 이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는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국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기기증자는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후 각각기증자는 2012년 99명, 2013년 82명, 2014년 75명, 2015년 64명, 2016년 83명으로 나타났다. 생존 시 기증자는 2012년

2047명, 2013년 1924명, 2014년 1955명, 2015년 2002명, 2016년 2209명이었다.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뇌사 기증자가 2012년 179명, 2013년 128명, 2014년 115명, 2015년 148명, 2016년 157명이었다. 사후 기증자는 2012년 69명, 2013년 101명, 2014년 106명, 2015년 138명, 2016년 128명이었다. 생존 시 기증자는 2012년 1843명, 2013년 1647명, 2014년 1407명, 2015년 1308명, 2016년 1691명이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늘고 있지만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약 3만명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뇌사기증률(인구 백만명당 기증자)은 9.9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페인 36, 미국 28.5, 이탈리아 22.5, 영국 20.2 등이다.

이에 비해 생존기증률은 한국이 38.4로 미국 18.8, 영국 16.6, 스페인 9.4, 이탈리아 5.3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기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 보건소·의료기관 등 등록기관에 방문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우편 또는 FAX로 보내도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일회용 치료재료 7개 항목 별도 보상

안전바늘주사기 등은 내년부터 적용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가 현행 '행위료 포함 별도신청 불가'에서 '별도 보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9월 15일 열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

는 일회용 치료재료 1단계 7항목(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된다. 7항목은 '1회용 Air-Blanket 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 체내용지혈용품(폴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실드'이다.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별군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

### 질병예방 정보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는 질병예방 정보에 대한 건강한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함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보를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연계해 감염병,

민생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카카오톡에 제공하면, 카카오톡의 다음백과, 브랜드 검색, 카카오톡 샵(#) 검색 등을 통해 최신 질병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돕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병별·시기별 다양한 건강수칙 영상과 카드뉴스 등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KCDC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이용자가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민·관 질병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돼 궁극적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위기관리가 가능해져 감염병 차단과 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이번 협약과 같이 기관의 질병보건 정보와 민간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더하는 '공중보건 소통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jo@

### 간협 대표자회의 ... 대국회활동 주력키로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대한간호협회는 임시 대표자회의를 9월 20일 열어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연 국회의원이 9월 1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 단체(중앙회와 지부 설립)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제80조) △간호조무사 업무(제80조의2) △준용규정(제80조의3)이 있다. 준용규정에서는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인 단체'(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신고'(제25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간협회는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의료인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적용되는 의료인 단체 관련 규정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됐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2015년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타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로잡는 정책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정규국 기자 kschung@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2~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일정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0월 12~13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회) △10월 16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 △10월 17일=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10월 19일=국민연금공단(전주) △10월 20일=시찰(미정) △10월 23일=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보험협회(국회) △10월 24일=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0월 26일=시찰(미정) △10월 27일=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10월 30일=시찰(미정) △10월 31일=종합감사(국회).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확 바뀐 하나카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네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44-3137

대한간호협회

### 간호사가 가봐야 할 사진전

호스피스환자 초상 담아낸 '있는 것은 아름답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전 '있는 것은 아름답다(Right, Before I Die)'가 서울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미국 사진작가 앤드루 조지가 2년간 LA 프로비덴스 홀리 크로스 메디컬센터의 호스피스와緩和의료센터에서 찍은 인물사진과 그들과 나는 인터뷰 내용이 전시됐다.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삶과 죽음에 관한 주말강연회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린다. 사진은 올해 6월 아시아 최초로 충무아트센터에서 전시됐으며, 큰 호평을 얻어 이번엔 영국 전시가 마련된 것이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7시이다. 매주 월요일과 추석연휴 10월 3~5일은 휴관이다. 입장료는 성인 9000원, 청소년·대학생 7000원, 어린이·65세 이상 5000원이다. 간호사의 경우 명함이나 사원증을 제시하면 5000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앤드루 조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환자를 만나 사진을 촬영하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자를 만난 느낌이었고, 이번 전시는 죽음에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한 "사진 속 인물들은 생각보다 너무 이른 죽음에 맞닥뜨렸으면서도 이 사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 "죽음



간호사 입장으로 할인혜택  
서울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10월 31일까지

을 앞에 두고도 의연하게 지나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와 클라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메디컬 디렉터는 "앤드루가 환자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됐고,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데에서 벗어나 환자의 인생을 보살피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김승업 충무아트센터 사장은 "을 가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전을 관람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진정 아름다운 일임을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체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 원 간 호 사 회 (02) 2261-1711	보 건 간 호 사 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 건 진 료 소 정 회 (02) 2266-7677	보 건 교 사 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 취 간 호 사 회 (010-3103-0748)	보 험 심 사 간 호 사 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 일 간 호 사 회 (02) 716-9030	가 정 간 호 사 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 신 간 호 사 회 (02) 425-1271	노 인 간 호 사 회 (031) 750-5080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 
 벤처기업 인증기업 /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좋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